

# 상대적 경제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형태(숭실대학교 강사)

## 요약

본 연구는 경제관련 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자료 중 4,294가구 10,553명을 대상으로 지역에 따른 경제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단순한 경제수준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수준을 지역에 따라 표준점수(Z-score)로 환산한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단순한 경제수준보다는 표준점수로 환산된 상대적 경제수준이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정부분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소득과 지출, 저축 등 경제수준 관련 변인들이 일관되게 부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지출 기준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 편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의 소득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 일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상위집단에서는 전년도의 소득이 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반면에 하위집단에서는 전월의 소득이 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집단의 소득 불안정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경제수준 상대적경제수준 만족도 생활만족도

## 1. 서론

경제적인 수준과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의 사이에는 얼마나 큰 관련성이 있을까?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 보다 행복해지는 것일까? 언론을 통해, 그리고 주위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시대의 화두는 경제, 그리고 그로 인한 행복한 미래이다. 국가정책의 제1목표가 경제성장에 맞추어져 있고, 개인의 가치 역시 경제중심의 성장주의에 맞추어져 있으며, 언론도 개인의 행복을 경제력(money)에 초점을 맞추어(Biswas-Diener, et al., 2004: 23) 경제수준이 향상되면 개인의 삶은 보다 행복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우리사회에 팽배하게 되었다. 지역 간의 경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임석희, 2002: 513; 정원식, 2001: 142), IMF 경제위기로부터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면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3년에 1만2천 달러에 달했고, 2008년이면 2

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만족도<sup>1)</sup> 역시 꾸준히 상승해 왔다(강성진, 2005: 519-520). 과연 사람들은 경제수준이 향상되면 더 행복감을 느끼는가? 오래된 질문이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다. 한 가정 또는 한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이 향상되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도 증가할 것이라고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으며, 그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사람이 느끼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수없이 많고, 개인마다 느끼는 변이의 차이가 매우 크며, 그러한 기분(mood)은 해마다 변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변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Layard, 2003: 25) 실증적인 접근을 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지만 고도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경제수준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제수준의 향상이 개인의 행복감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들은 그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인 환경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sup>2)</sup> 이것이 단순한 경제수준의 향상이 개인의 행복감 또는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sup>3)</sup>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에서의 조사연구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행복은 증대되지 않았으며, 부유한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모두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Layard, 2003: 25; Layard, 2005: 29).<sup>4)</sup>

그렇다면 과연 경제수준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경제적인 수준과 관련된 요인들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행복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강한 심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수준의 향상이 개인의 행복감을 높여주지 못한다면, 단순한 경제수준 보다는 주변사람들과 비교된 상대적인 경제수준이 행복감을 보다 잘 설명하거나<sup>5)</sup> 또는 경제수준에 따라 계층을 분리하여 각 계층이 인지하는 주관적 행복감을 알아볼 때, 경제수준과 행복감의 관계가 보다 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이다. 정부의 역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경제수준의

- 1) 맥락에 따라 행복, 행복감, 생활만족도, 주관적 안녕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
- 2) 경제이론에서는 소득이나 취업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주안점을 두어, 수입이 많아질수록 개인의 행복감이 향상되고, 전체 사회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안녕(well-being)을 증가시킨다고 보며(Easterlin, 2004: 26-27),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행복한 것은 평균적으로 볼 때 사실이다. 예를 들면 소득이 상위 25%에 속하는 집단의 41%가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소득이 하위 25%에 속하는 집단은 26%만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다(Layard, 2003: 25). 세계의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대단위 조사들은 캐나다나 스웨덴과 같이 부유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케냐나 방글라데시와 같이 가난한 저개발국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 단위에서 볼 때 보다 많은 부의 소유가 사회적 효용(utilities)과 인프라(infrastructure)로 이전되고, 영양의 효율적인 분배, 취업기회의 확대, 그리고 낮은 비율의 부패와 범죄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Biswas-Diener, et al., 2004: 23-24).
- 3) 어느 한 시점에서 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과 적은 계층을 비교한다면 높은 계층이 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 개인의 소득이 향상된다고 해서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라는 증거는 없으며(Easterlin, 2004: 31), 일단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져서, 물질주의(materialism)는 오히려 행복에 장애요인이 된다(Biswas-Diener, et al., 2004: 23-24).
- 4) 일본은 1960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GDP가 5배 급증하였고,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의 행복지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제기적을 이룬 한국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Time, February 28, 2005: 40).
- 5) 상대소득가설에 의하면 효용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기 자신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중요한 효용수준의 결정요인이다(강성진, 2005: 523).

향상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만족도가 이와 함께 향상되지 않거나, 둘 사이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서 그 영향 변인들을 찾아야 할 것이며, 단순한 경제수준보다는 그 상대적 수준에서 생활만족도 관련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도 그 중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수준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제여건이 성숙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재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계의 전개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2. 선행이론 고찰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행복(happiness)이란 느낌이 좋은 것(feeling good)으로서, 삶을 즐기고(enjoying life) 삶이 훌륭하다고 느끼는(feeling wonderful) 상태이며, 불행(unhappiness)이란 나쁜 느낌(feeling bad)으로서 지금과는 다른 것을 원하는(wishing different) 상태이다(Layard, 2003: 25). 행복이라는 용어는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또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등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며(Easterlin, 2004: 26), 이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이다(Biswas-Diener, et al., 2004: 19). 즉,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대가 형성되며, 이러한 기대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데, 생활만족도란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Medley, 1976, 김미혜·김혜선, 2004: 156에서 재인용).

생활만족도는 뉴가튼(Neugarten) 등이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된 것으로(김미혜·김혜선, 2004: 156) 개념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대상에 따라 하위범주로 세분화해 연구를 하기도 한다.<sup>6)</sup> 최근에는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대단위의 자료를 처리하기가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미시적 자료의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검증이 시도되고 있다(강성진, 2005: 517).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나이와 성별, 민족, 교육정도, 외모, 종교 등이 관련이 있으며(Biswas-Diener, et al., 2004: 23), 계층과 대상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스워스디너(Biswas-Diener) 등은 주관적 안녕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격(personality)과 적응능력(adaptation)<sup>7)</sup>, 그리고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이며, 경제력(money)은 기껏해야 그 중요도 측면에서 볼 때 중간정도라고 밝혔다. 그 예로 캘리포니아의 노숙자와 미국의 노숙자를 비교하며,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안녕은 더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Biswas-Diener, et al., 2004: 21-23). 디너(Diener) 등도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을 성격으로 보고 정서적, 인지적 관점에서 생활만족도를 연구하였다(Diener, Ed, Oishi, Shigehiro and Lucas, R., 2003).

런던대학의 교육연구소에서 2000년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0세 여성 중 29퍼센트가 신경과민(nerves)이거나 우울 또는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82년도에 36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6) 예를 들면 부부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직무만족도 등과 같이 한정된 분야로 세분화하여 만족도를 평가한다.

7) 심리학에서의 셋포인트이론(setpoint theory)은 각 개인은 유전이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행복 또는 생활만족에 대한 고정된 셋포인트가 있다고 본다. 결혼이나 이혼, 실직 또는 심각한 사고나 질병과 같은 사건들이 한 개인의 삶에서 셋포인트의 상위 또는 하위방향으로 벗어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다시 원래의 셋포인트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Easterlin, 2004: 26-27).

실시한 유사한 조사에서는 그러한 비율이 16퍼센트였다. 우울성향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울성향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Layard, 2003: 25). 한편 바로스(Burroughs)와 린드플레시는(Rindfleisch)는 물질주의(materialism) 성향과 관련된 연구는 문 19편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질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고,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기질(trait)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근심(social anxiety)이 많고, 자기비판적인 성향(self-criticism)이 높으며, 경제적인 성공(financial success)이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urroughs and Rindfleisch, 2002: 352-353).

이와 같은 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적인 측면이 생활만족도에 주는 영향은 부정적이거나 미약하며, 소득의 향상이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게 한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Easterlin, 2004: 31)<sup>8)</sup>. 국가별 분석에 의하면 1인당 GNP가 약 1만 불까지는 만족도와 소득 간에 정적인 관계를 갖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강성진, 2005: 518). 그러나 국가 단위의 연구 결과를 개인 단위에 적용하여 해석할 경우, 즉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한다면 생태학적 오류<sup>9)</sup>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의 경제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가구별 또는 개인별 경제력이 향상된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경제수준과 비례하여 향상되지만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의 행복지수는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행복지수가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로 경제수준의 향상이 사회적인 불평등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행복지수는 향상시킨 반면 고소득계층의 행복지수가 감소하였다면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의 행복지수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수준의 향상이 사람들의 행복감이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단위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는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나(강성진, 2005: 517), 이러한 결과만으로 경제의 회복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감을 향상시켰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1998년 이후 1인당 GNP가 1만 불을 넘어선 2003년도까지 경제의 성장과 행복감이 상승했다는 증거와 함께 1997년 말,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의 경제수준과 행복지표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증거가 발견되어 장기적인 맥락에서 경제수준과 행복지표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그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의 소득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인 것으로 보이며, 버트랜드 러셀(Bertrand Russell)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한 것처럼(Biswas-Diener, Diener, and Tamir, 2004: 18)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자신의 상대적 지표가 생활만족도를 보다 잘 설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연구로 딜라드(Dillard, 1987: 122-125, 박미금·계선자, 1994: 108에서 재인용)는 경제환경에 대한 만족을 연구하는데 독립변인으로 객관적 변인과 주관적 평가변인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 경제환경에 대한 만족을 설명하는데 객관적 변인만으로는 설명력이 32%였고, 주관적 평가변인을 추가한 결과 58%로 26%가 증가하여 주관적 평가변인의 영향력을 입증하였다. 에몬스(Emmons)와 디너(Diener)는 만족도 측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객관적 변인이 주관적 복지인 만족감을 얼

8) 교육정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고 소득과 각 개인의 생활주기(life cycle)에 따라 각 집단의 행복함을 분석했을 때, 집단 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소득의 향상에 따른 행복함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9)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란 '집단이나 다른 집합체의 조사에 근거하여, 분석단위로서의 개인들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게 되는 위험성'을 말한다(김영중, 2001: 56).

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객관적 변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심리적 과정인 사회적 비교감과 긍정적 영향감은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Emmons and Diener, 1985: 163-164, 박미금·계선자, 1994: 108에서 재인용).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박미금과 계선자(1994: 109-111)는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대적 비교감이라는 변인을 정의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을 이웃이나 친구 또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였을 때 느끼는 지각 정도로서, 소득 적정감과 함께 상대적 비교감은 남편과 부인 모두에서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절한 정도의 경제수준이 뒷받침되면서 주위사람들과의 상대적인 경제수준이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적정감과 상대적 비교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신의 소득을 비교하는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는 첫째,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높은 생활기준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둘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자신의 요구를 맞추기 때문이다(Layard, 2003: 26). 따라서 누구와 비교하는지에 따라 행복의 정도(level of happiness)가 변한다. 동유럽의 경우 1990년 이래로 생활조건이 급격히 향상되었으나 그들이 느끼는 행복은 급락했다. 서유럽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 생활조건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급여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기회가 늘어났으나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은 남성에 비해 낮아졌다. 이전과 달리 여성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남성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아직도 잔존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되었기 때문이다(Layard, 2003: 26).

이상의 문헌고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만족도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이어서 측정이 쉽지 않다. 둘째, 경제수준의 향상이 생활만족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일정한 소득까지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물질주의(materialism)적인 경향은 생활만족도와 부적 관계를 갖는다. 넷째, 적절한 소득과 주변 사람들과 비교되는 상대적 경제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대한 더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경제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대해 더 높은 설명력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의 소득과 지출, 저축 등 단순한 경제수준과 이들을 표준점수(Z-score)로 산출한 상대적 경제수준이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가구의 일정한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두 집단 사이에 경제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2)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sup>10)</sup>의 1-5차년도 조사자료(1998-2002) 중 5차년도(2002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KLIPS 데이터 중, 제주도를 제외한<sup>11)</sup> 전국의 15개 시도에 거주하는 15세부터 96세까지의 총 4,298가구의 10,550명이 대상이며, 자료는 편의에 따라 SAS 8.1과 Spss 12.0 for Windows가 병행 사용되었다.<sup>12)</sup> 먼저 자료의 분포와 퍼짐 정도 등을 알아보았으며, 모집단의 정규성에 대한 가정을 확인하였다. 둘째, 생활만족도와 경제수준의 지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KLIPS에서 제시된 생활만족도 관련 7개 항목에 대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주성분을 구한 이유는 KLIPS가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조화된 조사가 아니며, 생활만족도 관련 7개의 항목이 개념의 측정을 위해 구조화된 척도가 아니고, 7개 항목이 경제관련 항목과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범주화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1단계로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독립변인(소득, 지출, 저축 등) 자료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단순한 경제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2단계로 독립변인들을 15개 지역의 각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경제관련 독립변인(소득, 지출, 저축)의 개인별 표준점수(Z-score)<sup>13)</sup>를 구한 후에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상대적 경제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아 1단계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3단계에서는 전체 대상을 가구지출의 중위금액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에 대해 별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 집단에서 경제관련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3) 연구도구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리고 통제변인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변인의 분류 및 속성

구분	변인명	설 명	측정단위 및 속성	
통제변인	GEN	성별	0: 여성 1: 남성	명목
	AGE	연령	만나이	연속
	MAR	혼인상태	0: 미혼, 이혼, 별거, 사별 등 1: 기혼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명목

10)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6차 조사(2003년)까지 완료되었으며, 현재 7차 조사(2004년)가 진행 중이다.

11) 제주도는 표본수가 적어 제외하였다.

12) 기술적인 통계치와 정규성 검증을 위하여 Spss를 사용하였으며, 분산분석, 주성분분석, 회귀분석 등은 SAS를 사용하였다. SAS는 자료를 처리하는 기능이 뛰어나며, 유사한 분석에서 일부의 변인만을 교체하는 반복적 분석에서 활용도가 높다.

13) 표준점수는 표준편차에 의한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므로 표준점수를 통해 각 개인이 속한 지역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수준을 알 수 있다.

	EMP EDU	취업여부 교육년수		0: 미취업 1: 취업 교육정도를 년수로 표현	명목 연속
종속변인	SAT	생활 만족도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전반적 생활	5점 Likert 척도 (Cronbach $\alpha = 0.85$ )	연속
독립변인	YIN	전년도가구총소득 <sup>14)</sup>		근로, 금융, 부동산, 사회보험, 이전소득, 기타	연속
	YIN1	전년도가구원당총소득		YIN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	연속
	MIN	전월가구총소득		근로, 금융, 부동산, 사회보험, 이전소득, 기타	연속
	MIN1	전월가구원당총소득		MIN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	연속
	MEX	월평균가구총지출		식비, 외식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외	연속
	MEX1	월평균가구원당총지출		MEX를 가구원수로 나눈 값	연속
	MSA	월평균가구총저축		적금, 연금, 보험, 계, 기타	연속
	ZYIN	YIN의 Z점수			연속
ZMIN	MIN의 Z점수			연속	
ZMEX	MEX의 Z점수			연속	
ZMSA	MSA의 Z점수			연속	

#### 4.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2>는 총 4,294가구의 경제수준과 관련한 특성을 지역별로 나타내고 있다. 총 표집대상 중,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983가구와 758가구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1,741가구가 표집되어 전체의 40.5%를 차지하였고, 강원과 충북에서는 100가구 미만으로 표집수가 서울경기지역의 10% 정도에 불과하였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3.3명이고, 전년도 가구총소득은 전체 평균 2,558만원으로 가구원 1인당 소득은 평균 789만원이었다. 전월가구총소득과 전월가구원당총소득은 평균 204만원과 63만원이었으며, 월평균가구총지출과 월평균가구원당총지출은 각각 133만원과 42만원이었다. 월평균가구총저축은 평균 41만원이었다. 15개 지역 중에서 울산지역이 전년도가구총소득과 전월가구총소득, 월평균가구총지출, 그리고 월평균가구총저축 등 모든 경제관련 수치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울산시가 대기업이 진출한 공업도시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나, 표준편차가 커서 분포가 넓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을 제외하고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전반적인 경제수준에 있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전년도가구총소득과 전년도가구원당총소득

14) 가구소득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국내의 통계조사로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가 있다. 이 조사의 경우 소득을 세전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반해 KLIPS는 조세를 제외한 세후소득을 측정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04: 54). KLIPS는 조사대상이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며, 소득자료는 도시가계조사 자료에 비해 응답자의 과소보고 가능성이 높다(구인회, 2002: 89).

특, 월평균가구총지출, 그리고 월평균가구원당총지출이 가장 낮았으며, 강원은 전월가구총소득과 전월가구원당총소득이 가장 낮았고, 경북은 월평균가구총지출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 지역에 따른 연구대상의 가구별 특성

Mean (S.D.)

지역	가구수	평균 가구원수	전년도 가구총소득	전년도 가구원당 총소득	전월 가구총소득	전월 가구원당 총소득	월평균 가구총지출	월평균 가구원당 총지출	월평균 가구 총지출
서울	983	3.3(1.3)	2,962(3,657)	922(1,134)	229(202)	72(74)	152(96)	48(28)	49(68)
부산	439	3.2(1.3)	2,353(2,308)	751(795)	204(372)	62(80)	128(92)	41(24)	35(48)
대구	253	3.3(1.2)	2,040(1,792)	643(579)	167(133)	53(45)	129(69)	42(24)	29(48)
대전	138	3.5(1.2)	2,542(1,947)	793(629)	208(148)	63(49)	143(74)	44(26)	46(61)
인천	250	3.5(1.3)	2,261(1,598)	674(548)	175(125)	52(38)	128(63)	38(18)	36(57)
광주	156	3.2(1.3)	2,322(1,996)	758(580)	185(248)	63(110)	128(79)	44(31)	43(57)
울산	115	3.5(1.2)	4,236(7,631)	1,116(1,353)	262(234)	75(58)	163(92)	48(23)	68(84)
경기	758	3.5(1.3)	2,842(2,963)	831(893)	248(511)	73(137)	140(78)	42(23)	45(66)
강원	97	3.1(1.5)	2,158(3,464)	602(806)	133(186)	40(52)	110(79)	36(19)	27(41)
충북	98	3.4(1.3)	2,309(1,597)	672(496)	191(135)	57(44)	118(65)	36(19)	49(54)
충남	134	3.2(1.5)	1,783(1,483)	554(395)	135(116)	42(35)	93(60)	30(16)	29(44)
전북	193	3.2(1.4)	2,172(1,906)	709(649)	152(146)	48(46)	118(82)	39(24)	38(67)
전남	148	3.1(1.4)	2,480(3,290)	796(1,037)	172(227)	53(59)	115(86)	38(26)	37(56)
경북	236	3.1(1.4)	1,896(1,798)	630(601)	136(127)	45(46)	107(71)	37(22)	21(33)
경남	296	3.3(1.5)	2,337(1,928)	769(729)	215(493)	67(163)	127(82)	41(24)	41(50)
전체	4,294	3.3(1.3)	2,558(2,978)	789(873)	204(315)	63(92)	133(84)	42(25)	41(60)
F	-	-	6.55***	5.33***	3.84***	3.69***	9.88***	9.00***	6.87***

\*\*\* p < .0001

(단위 : 만원)

<표 2>의 아랫부분에는 15개 지역에 따른 경제수준 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의 결과가 나타나있다. 소득과 지출, 지출 등 경제수준 관련 7개 변인의 모평균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연구대상의 개인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서울과 경기 지역의 표집수가 4,347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하였고, 부산지역이 1,094명으로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였다. 강원과 충북 지역이 가장 적어서 각각 2%를 약간 넘는 표집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른 표집의 비율은 남자가 48%, 여자가 52%로 여자의 비율이 4% 높았고, 나이는 15세부터 96세 까지로 평균나이는 42.2세 였다. 혼인상태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4%, 미혼이거나 이혼, 별거, 사별 등 그 이외의 경우가 36%였다. 교육년수는 무학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되었으며, 평균 교육년수는 10.7년으로 고등학교 2학년 중퇴수준이었다. 취업상태는 취업이 55%, 미취업이 45%로 취업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나 취업자의 범위에는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과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을 한 사람까지 포함되어 취업자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표 3> 지역에 따른 연구대상의 개인별 특성

Mean (S.D.)

지역	N	성별		나이	혼인상태		교육년수	취업상태	
		남자 N(%)	여자 N(%)		유배우자	무배우자		취업	미취업
서울	2,508	1,214(48.4)	1,294(51.6)	41.2(15.9)	1,520(60.6)	988(39.4)	11.4(3.9)	1,404(56.0)	1,104(44.0)
부산	1,094	527(48.2)	567(51.8)	41.6(16.7)	643(58.8)	451(41.2)	10.6(3.9)	590(53.9)	504(46.1)
대구	633	310(49.0)	323(51.0)	41.8(16.2)	395(62.4)	238(37.6)	10.8(4.0)	329(52.0)	304(48.0)
대전	348	166(47.7)	182(52.3)	39.7(16.0)	234(67.2)	114(32.8)	11.1(4.1)	198(56.9)	150(43.1)
인천	651	324(49.8)	327(50.2)	41.4(16.3)	417(64.1)	234(35.9)	10.8(3.8)	354(54.4)	297(45.6)
광주	350	166(47.4)	184(52.6)	42.1(16.8)	228(65.1)	122(34.9)	11.1(4.5)	186(53.1)	164(46.9)
울산	297	140(47.1)	157(52.9)	41.1(15.8)	202(68.0)	95(32.0)	10.7(3.8)	169(56.9)	128(43.1)
경기	1839	875(47.6)	962(52.4)	42.3(16.2)	1,261(68.6)	578(31.4)	10.8(4.2)	1,049(57.1)	788(42.9)
강원	223	107(48.0)	116(52.0)	45.9(18.1)	149(66.8)	74(33.2)	9.4(5.0)	99(44.4)	124(55.6)
충북	250	120(48.0)	130(52.0)	42.7(18.3)	168(67.2)	82(32.8)	10.2(4.3)	123(49.2)	127(50.8)
충남	315	148(47.1)	166(52.9)	46.5(18.6)	214(67.9)	101(32.1)	8.8(5.0)	176(56.1)	138(44.0)
전북	453	209(46.1)	244(53.9)	45.1(18.3)	295(65.1)	158(34.9)	10.0(4.8)	243(53.6)	210(46.4)
전남	308	142(46.1)	166(53.9)	43.4(17.5)	210(68.2)	98(31.8)	9.8(4.8)	171(55.5)	137(44.5)
경북	561	260(46.4)	301(53.7)	45.3(18.0)	359(64.0)	202(36.0)	9.1(4.7)	335(59.7)	226(40.3)
경남	723	356(49.2)	367(50.8)	41.2(16.1)	465(64.3)	258(35.7)	10.5(4.4)	416(57.5)	307(42.5)
전체	10,553	5,064(48.0)	5,486(52.0)	42.2(16.7)	6,760(64.1)	3,793(35.9)	10.7(4.2)	5,842(55.4)	4,708(44.6)

<표 4> 지역에 따른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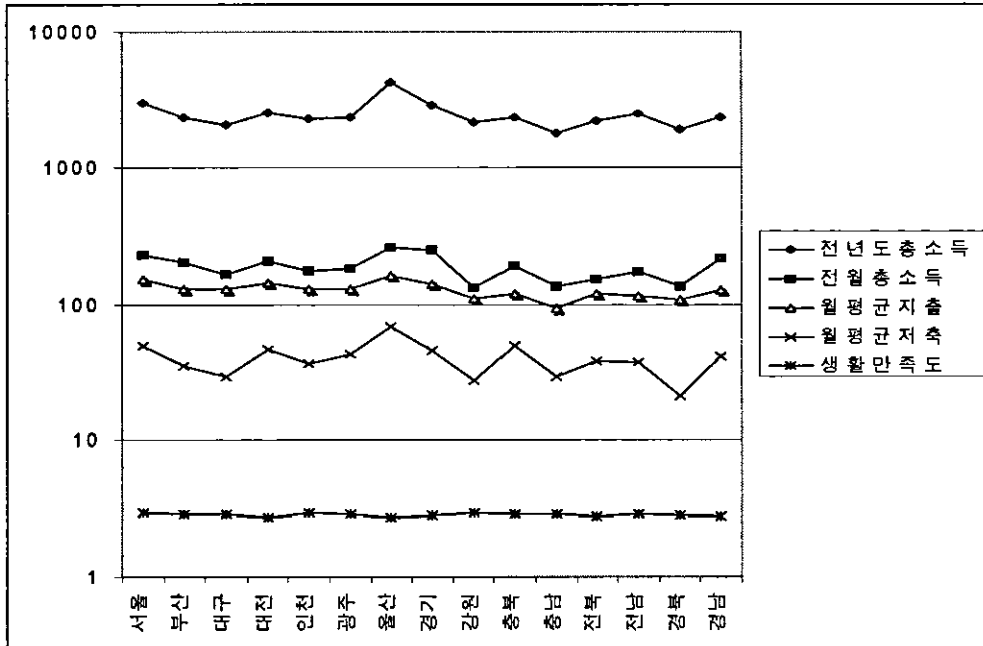
Mean (S.D.)

지역	N	SAT	순위	F
서울	2,508	2.90(.50)	2	14.20***
부산	1,094	2.85(.50)	4	
대구	633	2.85(.53)	4	
대전	348	2.68(.54)	14	
인천	651	2.88(.46)	3	
광주	350	2.82(.48)	8	
울산	297	2.66(.40)	15	
경기	1,839	2.80(.48)	11	
강원	223	2.92(.56)	1	
충북	250	2.85(.54)	4	
충남	315	2.85(.48)	4	
전북	453	2.74(.55)	12	
전남	308	2.82(.47)	8	
경북	561	2.81(.51)	10	
경남	723	2.72(.47)	13	
전체	10,553	2.83(.50)	-	-

주) SAT는 7개 생활만족도 항목에 대한 평균값으로 산출한 것임.

<표 4>는 지역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과 지출, 저축 등 경제관련 수준이 낮게 나타난 강원지역의 생활만족도가 2.92로 가장 높았고, 충남지역 역시 2.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2.90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경기지역은 2.80으로 11번째로 나타났다. 경제관련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울산지역의 생활만족도는 2.6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강원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그림 1>은 15개 지역의 소득과 지출, 저축 등 경제수준과 생활만족도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울산지역이 전년도 총소득에 있어 두드러지게 높으나 생활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구와 강원, 충남지역은 경제관련 수준은 낮으나 생활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지역에 따른 경제수준과 생활만족도

<표 5>는 생활만족도와 관련한 7개 문항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번과 2번 항목의 고유값(Eigenvalue)이 1보다 크게 나타났고, 두 개의 항목으로 전체 변동의 71%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주성분에 대응되는 고유벡터(Eigenvector)들의 값이 7개의 생활만족도 항목에 고르게 적재(load)되어 있어 주성분1은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성분에 대응되는 고유벡터값들은 경제와 관련된 1, 2, 3번 항목에 비교적 큰 값이 적재되어 있고,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4, 5, 6번 항목에는 음의 큰 값이 적재되어 있어 사회적 관계에 비해 경제와 관련된 특징이 우세한 정도를 추정해주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생활만족도 7개 항목의 상관행렬에 대한 Eigenvalues와 Eigenvectors

No	생활만족도	Eigenvalue	Differnece	Proportion	Cumulative	Eigenvector	
						주성분1	주성분2
1	가족의수입	3.82	2.70	0.55	0.55	.324	.496
2	여가활동	1.12	0.53	0.16	0.71	.333	.484
3	주거환경	0.59	0.10	0.08	0.79	.362	.242
4	가족관계	0.49	0.08	0.07	0.86	.405	-.340
5	친인척관계	0.40	0.08	0.06	0.92	.407	-.413
6	사회적친분관계	0.32	0.07	0.05	0.96	.392	-.400
7	전반적생활만족	0.25		0.04	1.00	.413	.127

<표 6>은 회귀분석에 투입될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년수와 연령 간에 부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연령층의 낮은 학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

(N = 10,553)

변인	1	2	3	4	5	6	7	8	9
1 성별	-								
2 연령	-.037**	-							
3 혼인상태	.050**	.326**	-						
4 취업상태	.257**	-.048**	.218**	-					
5 교육년수	.210**	-.602**	.014	.184**	-				
6 전년도 가구총소득	-.001	-.094**	.046**	.054**	.178*	-			
7 전월 가구총소득	.006	-.093**	.029**	.072**	.150**	.371**	-		
8 월평균 가구총지출	.009	-.191**	.044**	.054**	.321**	.461**	.384**	-	
9 월평균 가구총저축	.002	-.141**	.078**	.132**	.229**	.361**	.318**	.421**	-

<표 7>은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변인들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한 Kolmogorov-Smirnov 검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7개의 경제관련 변인과 통제변인, 그리고 생활만족도 변인 모두가 모집단의 정규성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7> 연속변인에 대한 정규성 검증

변인	Kolmogorov-Smirnov test	
	Statistic	df
전년도 가구총소득	.192***	10369
전년도 가구원당총소득	.195***	10369
전월가구 총소득	.246***	10369
전월 가구원당총소득	.244***	10369
월평균 가구총지출	.087***	10369
월평균 가구원당지출	.131***	10369
월평균 가구총저축	.237***	10369
나이	.063***	10369
교육년수	.240***	10369
생활만족도	.086***	10369
주성분1	.077***	10369

\*\*\* p < .001

<표 8>은 조사대상 10,553명에 대해 경제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인은 7개의 생활만족도 항목의 평균이며, 주성분분석에 의해 도출된 주성분1을 회귀분석에 투입하였을 때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의 설명력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8>에서 모델1은 통제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의 회귀분석 결과이고 모델2-1부터 모델2-4까지는 경제관련 변인인 전년도가구총소득(YIN), 전월가구총소득(MIN), 월평균가구총지출(MEX), 그리고 월평균가구총저축(MSA) 변인을 하나씩 차례로 추가 투입하여 도출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이는 경제관련 변인들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투입한 결과이고, 이들 경제관련 변인들을 지역에 따라 표준점수(Z-score)로 환산하여 투입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모델3-1부터 모델3-4까지이다. ZYIN과 ZMIN, ZMEX, ZMSA 변인은 각각 YIN, MIN, MEX, MSA 변인에 대한 표준점수로서, 모델2-1부터 모델2-4까지 투입된 독립변인들과 대응되는 표준점수들이 투입된 회귀분석의 결과가 모델3-1부터 모델3-4까지이다.

먼저 순수한 통제변인들만의 회귀분석 결과인 모델1은 생활만족도의 변량을 6.6% 설명하고 있어 그다지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성별(GEN, 0:여자 1:남자)로는 여자보다 남자의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beta=.060, p<.001$ ), 나이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31, p<.05$ ). 혼인상태(MAR, 0:미혼,이혼,별거,사별 등 1:기혼유배우자)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보다 미혼이거나 이혼, 별거, 사별 중인 경우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76, p<.001$ ), 교육수준(EDU)과 관련해서는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생활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beta=-.265, p<.001$ ). 취업상태(EMP, 0:미취업 1:취업)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2-1부터 모델2-4, 그리고 모델3-1부터 모델3-4까지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15) 본 연구에서는 경제수준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상대적인 변량의 증감이 연구의 초점이다.

<표 8> 경제수준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조사대상 전체)

(N=10,553)

변인		모델1	모델2-1	모델2-2	모델2-3	모델2-4	모델3-1	모델3-2	모델3-3	모델3-4
통제변인	GEN	.060***	.050***	.049***	.039***	.032***	.047***	.043***	.038***	.032**
	AGE	-.031*	-.031*	-.033*	-.035**	-.039**	-.035**	-.039**	-.041**	-.045***
	MAR	-.076***	-.065***	-.064***	-.057***	-.050***	-.060***	-.059***	-.053***	-.045***
	EMP	-.005	-.001	.003	-.001	.012	.003	.012	.005	.016
	EDU	-.265***	-.227***	-.221***	-.168***	-.156***	-.211***	-.200***	-.165***	-.156***
독립변인	YIN		-.206***	-.173***	-.097***	-.069***				
	MIN			-.095***	-.041***	-.022*				
	MEX				-.227***	-.186***				
	MSA					-.161***				
	ZYIN						-.257***	-.187***	-.119***	-.092***
	ZMIN							-.144***	-.082***	-.045***
	ZMEX								-.200***	-.176***
	ZMSA									-.152***
F value		148.9***	208.5***	192.2***	228.6***	234.9***	257.3***	249.0***	261.6***	260.9***
Adj. R2		.066	.107	.114	.149	.169	.128	.143	.167	.184
Adj. R2 변화량		-	.041	.007	.035	.020	.062	.015	.024	.017
누적Adj.R2 변화량		-	.041	.048	.083	.103	.062	.077	.101	.118

\* p < .05 \*\* p < .01 \*\*\* p < .001

주) Adj. R2의 변화량과 누적변화량은 모델1을 기준으로 구한 수치임.

모델2-1부터 모델3-4까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득, 지출, 그리고 저축 등 경제관련 변인들이 일관되게 생활만족도와 부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를 지출관련 기준으로 상위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표 9>와 <표 10>)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경제수준 관련 변인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월평균가구총지출(MEX) 변인으로 나타났다(β=-.186, p<.001), 그 다음으로는 월평균가구총저축(MSA) 변인으로(β=-.161, p<.001) 경제수준 관련 변인 중, 가구소득보다는 지출과 저축의 수준이 생활만족도와 부적으로 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1부터 모델2-4까지를 살펴보면 먼저 전년도가구총소득(YIN)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F통계량이 148.9에서 208.5로 증가하였고, 조정된 R2값이 .066에서 .107로 증가하여 모델의 적합도와 설명력이 향상되었다. 모델의 적합도와 설명력은 전월가구총소득(MIN), 월평균가구총지출(MEX), 그리고 월평균가구총저축(MSA) 변인을 차례로 투입할 때마다 향상되어 네 가지 경제관련 변인이 모두 투입되었을 때는 F통계량이 234.9, 조정된 R2값이 .169로 향상되어 모델1에 비해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10.3% 향상되었다.

모델3-1부터 모델3-4까지를 살펴보면 먼저 전년도가구총소득(YIN)에 대한 표준점수(ZYIN)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F통계량이 148.9에서 257.3으로 증가하였고, 조정된 R2값은 .066에서 .128로 증가하여 모델 2-1에 비해 모델의 적합도와 설명력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가구총소득(MIN) 변인에 대한 표준점수(ZMIN) 변인과 월평균가구총지출(MEX) 변인의 표준점수(ZMEX) 변인, 그리고 월평균가구총저

축(MSA) 변인의 표준점수(ZMSA) 변인을 각각 추가로 투입하였을 경우에도 조정된 R2값이 꾸준히 향상되어 네 가지 표준점수 변인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는 .184가 되어 모델1에 비해 설명력이 11.8% 향상되었다. 그러나 F통계량은 모델3-2와 모델3-4에서 감소하여 모델의 적합도가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델2에 비해 모델3의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고, 조정된 R2값이 모델2에서는 10.3%가 향상된 반면 모델3에서는 11.8%가 향상되어 상대적 경제수준 변인의 설명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경제수준보다는 지역에 따른 상대적 경제수준이 생활만족도를 보다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와 <표 10>은 월평균가구총지출의 중위금액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분리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경제지표와 관련하여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분리 분석을 할 경우 경제수준과 생활만족도 사이에 보다 높은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년도 가구총소득과 전월가구총소득, 월평균가구총지출, 그리고 월평균가구총저축에 대해 평균금액과 중위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월평균가구총지출의 중위금액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했을 때,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가구총지출의 중위금액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분류하여 각각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9> 경제수준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생활비기준 상위집단)

(N=6,118)

변 인		모델1	모델2-1	모델2-2	모델2-3	모델2-4	모델3-1	모델3-2	모델3-3	모델3-4
통제 변인	GEN	.040**	.032*	.031*	.026	.018	.029*	.028*	.025	.018
	AGE	-.109***	-.093***	-.093***	-.073***	-.076***	-.087***	-.085***	-.070***	-.075***
	MAR	.016	.013	.013	.000	.006	.010	.009	-.001	.006
	EMP	.060***	.061***	.063***	.056***	.071***	.063***	.067***	.060***	.073***
	EDU	-.231***	-.205***	-.204***	-.176***	-.164***	-.194***	-.191***	-.173***	-.164***
독립 변인	YIN		-.176***	-.159***	-.117***	-.084***				
	MIN			-.051***	-.032*	-.012				
	MEX				-.128***	-.092***				
	MSA					-.172***				
	ZYIN						-.225***	-.186***	-.148***	-.115***
	ZMIN							-.084***	-.061***	-.027
	ZMEX								-.113***	-.092***
	ZMSA									-.162***
F value		46.8***	72.3***	65.2***	68.4***	80.2***	95.9***	87.8***	85.7***	93.4***
Adj. R2		.036	.067	.069	.082	.106	.086	.092	.101	.122
Adj. R2 변화량		-	.031	.002	.013	.024	.050	.006	.009	.021
누적Adj.R2 변화량		-	.031	.033	.046	.070	.050	.056	.065	.086

\* p < .05 \*\* p < .01 \*\*\* p < .001

주) Adj. R2의 변화량과 누적변화량은 모델1을 기준으로 구한 수치임.

<표 9>와 <표 10>을 비교해서 보면 상위집단의 경우 혼인상태(MAR, 0:미혼, 이혼, 별거, 사별 등 1:기혼유배우자)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하위집단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생활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128, p < .001$ ), 취업상태(EMP, 0:미취업 1:취업)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71, p < .001$ ).

업) 변인에 있어 상위집단은 미취업보다 취업한 경우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beta=.060, p<.001$ ) 대조적으로 하위집단에서는 취업한 경우의 생활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83, p<.001$ ).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준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처한 취업환경의 차이로 인해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관련 변인을 추가할 때에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전체를 대상으로 회귀분석했을 때, 월평균가구총지출(MEX)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이었던 것과 달리,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관련 변인은 월평균가구총저축(MSA)이었다(상위집단  $\beta=-.172, p<.001$ , 하위집단  $\beta=-.177, p<.001$ ).

<표 10> 경제수준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생활비기준 하위집단)

(N=4,435)

변인		모델1	모델2-1	모델2-2	모델2-3	모델2-4	모델3-1	모델3-2	모델3-3	모델3-4
통제 변인	GEN	.066***	.065***	.063***	.061***	.053***	.064***	.060***	.059***	.051**
	AGE	-.041*	-.049*	-.068**	-.094***	-.109***	-.055**	-.083***	-.110***	-.124***
	MAR	-.128***	-.119***	-.109***	-.090***	-.075***	-.115***	-.103***	-.083***	-.065***
	EMP	-.083***	-.080***	-.065***	-.061***	-.046**	-.077***	.052**	-.049**	.037*
	EDU	-.204***	-.198***	-.193***	-.178***	-.164***	-.194***	-.188***	-.177***	-.163***
독립 변인	YIN		-.104***	-.083***	-.067***	-.046**				
	MIN			-.121***	-.099***	-.058***				
	MEX				-.100***	-.081***				
	MSA					-.177***				
	ZYIN						-.129***	-.086***	-.070***	-.050**
	ZMIN							-.164***	-.135***	-.081***
	ZMEX								-.113***	-.108***
	ZMSA									-.171***
F value		55.0***	54.7***	56.0***	53.3***	62.1***	59.1***	67.1***	64.4***	71.0***
Adj. R2		.058	.068	.081	.088	.112	.074	.096	.104	.126
Adj. R2 변화량		-	.010	.013	.007	.024	.016	.022	.008	.022
누적Adj.R2 변화량		-	.010	.023	.030	.054	.016	.038	.046	.068

\* p < .05 \*\* p < .01 \*\*\* p < .001

주) Adj. R2의 변화량과 누적변화량은 모델1을 기준으로 구한 수치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월평균가구총저축(MSA)이고(상위집단  $\beta=-.172, p<.001$ , 하위집단  $\beta=-.177, p<.001$ ), 월평균가구총지출(MEX)이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집단  $\beta=-.092, p<.001$ , 하위집단  $\beta=-.081, p<.001$ ).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작은 변인은 상위집단에서는 전월가구총소득(MIN)이었고( $\beta=-.012, p<.001$ ), 하위집단에서는 전년도가구총소득(YIN)인 것으로 나타났다( $\beta=-.046, p<.001$ ). 이러한 차이는 상위집단에 비해 하위집단의 가구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집단의 모델2-1부터 모델2-4를 살펴보면 경제수준과 관련된 변인 4개를 변형하지 않고 차례로 투입했을 때, F통계량은 46.8에서 80.2로 향상되었으나 모델2-2에서 전월가구총소득(MIN)을 투입했을 때 F통계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모델2-3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조정된 R2값은 경제관련 변인을 투입할 때 마다 증가하여 모델1에서 .036이었으나 모델2-4에서는 .106으로 설명력이 총 7% 향상되었다.

모델3-1부터 모델3-4까지를 살펴보면 먼저 전년도가구총소득(YIN)에 대한 표준점수(ZYIN)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F통계량이 46.8에서 95.9로 증가하였고, 조정된 R2값은 .036에서 .086으로 증가하여 모델2-1에 비해 모델의 적합도와 설명력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가구총소득(MIN) 변인에 대한 표준점수(ZMIN) 변인과 월평균가구총지출(MEX) 변인의 표준점수(ZMEX) 변인, 그리고 월평균가구총저축(MSA) 변인의 표준점수(ZMSA) 변인을 각각 추가로 투입하였을 경우에도 조정된 R2값이 꾸준히 향상되어 네 가지 표준점수 변인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는 .122가 되어 모델1에 비해 설명력이 8.6% 향상되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수준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에 비해 1.6%의 설명력이 향상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했을 때 상대적 경제수준에 의한 설명력의 개선이 1.5%였던 것에 비해 약간 큰 값이다.

하위집단에서는 F통계량의 변화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sup>16)</sup> R2값은 모델1의 .058에서 전년도가구총소득(YIN)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068, 전월가구총소득(MIN)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081, 월평균가구총지출(MEX)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088, 그리고 월평균가구총저축(MSA)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112로 꾸준히 증가하여 모델에 대한 설명력이 총 5.4% 향상되었다. 이에 비해 상대적 경제수준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모델의 적합도가 월평균가구총지출(MEX) 변인의 표준점수(ZMEX)를 투입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55.0에서 71.0까지 상승추세를 나타냈다. R2값은 4가지의 경제수준 관련 변인의 표준점수인 ZYIN, ZMIN, ZMEX, ZMSA 변인을 차례로 투입하였을 때, 모델1의 .058에서 .074, .096, .104, .126으로 일관되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설명력이 6.8% 향상되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수준 변인을 투입했을 때 5.4%가 향상된 것에 비해 설명력의 상승폭이 1.4% 더 큰 것으로 전체 대상 회귀분석시 1.5%, 상위집단 대상 회귀분석시 1.6%와 비슷한 수준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득과 지출, 저축 등 경제관련 수준이 생활만족도와 갖는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도가구총소득과 전년도가구원당총소득, 전월가구총소득과 전월가구원당총소득, 월평균가구총지출과 월평균가구원당총지출, 그리고 월평균가구총저축 등 7개 경제관련 변인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15개 지역에 따라 모평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지출, 저축 등 경제수준이 울산지역이 가장 높고, 서울과 경기지역이 그 뒤를 이었으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울산지역이 가장 낮고, 경제수준이 낮은 강원지역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생활만족도는 두 개의 주성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첫 번째 주성분은 7개 항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로 정의될 수 있고, 두 번째 주성분은 사회적관계에 대한 경제 관련 특징의 우세한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첫 번째 주성분 변인을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개 항목의 평균을 생활만족도 변인으로 사용할 때 설명력(R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에는 7개 생활만족도 항목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셋째, 경제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과 지출, 저축 등 단순한 경제수준을 변인으로 투입할 때보다 지역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해 표준점수(Z-score)를 구한 상대적 경제수준 변인을 회귀분석에 투입하였을 때, 일관되게 모델의 적합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설명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경제수준이 생활

16) 단순한 경제수준 변인 투입시 55.0에서 62.1, 상대적 경제수준 변인 투입시 55.0에서 71.0으로 향상됨.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월평균가구총지출의 중위금액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단순 경제수준 변인을 투입했을 때와 상대적 경제수준 변인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동일하였다. 이는 단순한 경제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주관적 평가변인의 설명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관적 평가, 즉 상대적 비교감이 생활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경제수준 관련 변인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을 때 소득이나 지출, 저축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생활만족도와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준 하위집단에서 경제수준 관련 변인들이 생활만족도와 일정한 정도의 정적인 관계를 갖거나 큰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뛰어넘은 결과로 바로스와 린드플레시의 연구(Burroughs and Rindfleisch, 2002: 352-353)에서 물질주의(materialism) 성향이 생활만족도와 부적 관계가 있다고 정리한 결과와 일치한다. 다섯째, 전년가구소득과 전월가구소득, 월평균가구지출, 그리고 월평균가구저축 등 4개의 경제수준 변인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월평균가구지출 변인이었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월평균가구저축이었다. 소득과 관련하여 상위집단에서는 전년도가구총소득이 부적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졌으나 하위집단에서는 전월가구총소득이 부적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집단의 불안정한 소득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 관련 요인들이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준 상위집단에서 뿐만 아니라 하위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소득 및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및 고소득층이 느끼는 생활만족도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소득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우리사회 공동체 전체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보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배정책은 결국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는 소득 재분배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김철수, 2003: 176). 경제수준 하위집단에서 소득의 불안정이 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정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재분배(redistribution) 강화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미약하기는 하지만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주요 방법이 될 것이다(Layard, 2003: 26).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오차의 존재 가능성과 비선형적인 관계, 그리고 다른 변인에 의한 관계성의 왜곡 등 때문에 경제관련 변인으로 생활만족도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Saris, 2001), 본 연구에서도 소득, 지출, 저축 등 경제관련 변인들이 만족도와 뚜렷한 선형의 관계를 이루지 않아 회귀분석으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경제수준과 생활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화된 조사도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생활만족도의 항목이 구조화된 척도가 아니어서 경제수준과의 관련성 분석과 해석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조사도구를 통해 경제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광범위한 개념의 생활만족도 개념 중, 경제관련 만족도에 한정하여 집약적인 연구를 할 것이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성진. 2005. "한국인의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517-532.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113-149.
- 김미혜·김혜선. 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 24(3): 153-170.
- 김영중. 2001.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서울: 학지사.
- 김철수. 2003. "경제수준, 사회수준, 그리고 사회복지수준: 국제간 사회복지수준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55: 155-179.
- 박미금·계선자. 1994.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와 가계관리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06-117.
- 임석희. 2002. "Economic Restructuring and Regional Disparity agter the IMF Crisis in Korea".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4): 513-528.
- 정원식. 2001. "지방자치시대의 도시간 지역격차의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141-160.
- 한국노동연구원. 2004. 『한국노동패널 1-5차년도 User's Guide』 .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한정란·김수현. 2004. "농촌 남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 26: 91-118.
- Biswas-Diener, Robert, Diener, Ed, and Tamir, Maya. 2004. "The Psychology of Subjective Well-Being." *Daedalus* 133(2): 18-25.
- Burroughs, J, Rindfleisch. 2002. "Materialism and Well-Being: A Conflicting Values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9, 3: 348-370.
- Diener, Ed, Oishi, Shigehiro and Lucas, R., 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403-425.
- Easterlin, Richard. 2004. "The Economics of Happiness." *Daedalus* 133(2): 26-33.
- Layard, Richard. 2003. "The Secrets of Happiness." *New Statesman* 16: 25-27.
- . 2005. *Happiness - Lessons From a New Science*. New York: The Penguin Press.
-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5. 한정란·김수현에서 재인용
- Saris, Willem.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atisfaction: The Effect of Measurement Error and Suppressor Variables." *Social Indicator Research* 53(2): 117.
- Time. February 28, 2005. 40.